

“군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제7대 후반기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제7대 후반기 무주군의회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한 의회'를 기치로 내세운 지 1년이 지났다. 유송열 의장이 이끄는 후반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위주·주민 최우선주의를 금과옥조로 삼아 의정활동을 해 왔다.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는 의회 모습을 구현하려 노력한 것이다. 유 의장에게서 제7대 무주군의회 의회 활동상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Q 시민중심의 민생현안 해결 성과가 돋보였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반기 의회는 국가·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한 의회'를 기치로 무주군의회는 행동 지향적인 모범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무주군 친환경 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무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군민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밀착형 조례들을 의회가 직접 챙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합니다. 이밖에 예산안 심사에서는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의 집행과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피드백도 했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정책의 정 실현에도 노력했습니다.

Q 무주군의회에서만 시행한 시책이 있다는 데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초심, 열심, 뒷심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단연 으뜸은 초심일 겁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주군의회는 군민에게 다가



는 의정을 위해서도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후반기 의회 개원 직후 군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문과 방송에서 정책자료와 아이디어를 수집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신통방통제'를 시행했습니다. 실제로 안간심 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청사 현관에 '휴가분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이라는 별칭과 함께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장식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 남은 임기는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춥고 험난한 알프스를 넘어 오스트리아를 침공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산을 넘었을 때의 보상, 안락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생계 수단으로 삼았듯이 나폴레옹은 희망이라는 상품을 팔아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무주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군민에게 사랑받고,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무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할 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 복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군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겠습니다. ●

